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관 분석

Analysis on Leisure ViewPoint of Immigrant Female of Multi-Cultural Families

윤민숙*, 이정훈*, 김정련**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순천향대 공연예술학과**

Min-Sook Yun(yms24782478@hanmail.net)*, Jeng-Heun Lee(jengheun@cnu.ac.kr)*,
 Jeong-Ryeon Kim(dance0129@hanmail.net)**

요약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관 분석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경기도·대전·충남·충북 지역 소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유의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14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89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13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다.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주말 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다. 셋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만족은 '보통'이 가장 많다. 넷째, 다문화가정 여가활동 선호도는 '여행'이 가장 많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배우자'가 가장 많다. 여섯째, 연령, 학력, 국적, 기간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제한은 차이가 있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이주여성 | 여가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the analysis on leisure viewpoint of immigrant fema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urvey research have been performed with 140 of immigrant females who participate to the program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center located in Kyungki-do, Taejeon city, Chungnam-do and Chungbuk-do in 2010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final analysis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results of total 89 immigrant females and the credibility of this survey represented Cronbach's α value above .613. The apparent results were the follows: First, the major leisure time of immigrant female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week days as well as weekend represented to be 1~2 hours. Second, the satisfaction on leisure activity of immigrant females was average level. Third, the best preference as leisure activity was travel. Fourth, their husbands were the favor partner for leisure activity of immigrant females. Fifth, the restriction on leisure activity of immigrant females showed some differences based on age, academic background, nationality and residence period. That is, personal restriction of age was below 25 years old, the highest personal and relative restriction of academic background represented in immigrant females below middle school graduator. Furthermore, the structural restriction and personal restriction on nationality showed the highest in the china and phillippine females, relatively. Personal restriction on residence period was mainly represented in immigrant females residing during 2.1~4 years.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ies | Immigrant Female | Leisure Viewpoint |

I. 서론

1990년 이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현재 176,090명이며, 이러한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총각 절반은 국제결혼을 하며, 농어촌 총각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 3,469명의 연령은 평균 32세로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 44세와 비교해 12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는 사교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 사회적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 못지않게 그들이 한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24][11]. 정부의 지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동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전국 1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및 자녀양육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8]. 그러나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내용적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16]. 즉,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체계적 여가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가란 일로부터 해방된,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종래의 소극적 해석에서 더 탈피하여 미래의 창조적인 활동을 더욱 증대하게 하는 생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그 생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실존적인 시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활의 주된 관심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가의 활용이 인간 생활의 기본 문제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가 시간

의 배려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21][17]. 이렇듯, 여가는 우리들에게 선택적이고, 복합적인 여가활동 참여,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행동양식을 학습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를 수용·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33][14]. 이를 종합하면, 여가는 긍정적인 정서의 보편적인 출처가 되며, 성공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가져오고 이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Bolger & Eckenrode[32]은 여가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형성시키고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양시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여가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의 여가 활동이 제한적인 것은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소득이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 소득의 68%에 해당하는 즉,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며[3], 이들은 주로 어려운 농촌 총각, 도시 하류층 남성, 그리고 재혼 남성 등 주로 빈곤층 남성과 결혼하고 있고, 다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결국 긍정적 여가생활의 방해가 되는 원인이다[10][13][26].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참가를 통한 사회적응의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맞물린 다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을 높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은 타 학문에 비해 비미한 실정이다. 고봉찬[1], 차성란[25], 황향희[29]의 연구들이 이주여성들의 여가생활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여전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여가관을 연구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행위에 대한 기초 연구

가 없는 상황에서 여가행위와 관련된 여가제약 등의 변수를 규명하는 것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관계 연구를 위해서는 여가실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여가활동 실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여가활동 실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접근성에 기초하여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이주여성의 여가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연 령	25세 이하	16	18.0
	26~30세	25	28.1
	31~35세	13	14.6
	36~40세	16	18.0
	41세이상	19	21.3
학 령	중졸이상	22.2	22.5
	고졸	38.2	38.2
	대졸이상	39.2	39.3
국 적	필리핀	23	25.8
	일본	22	24.8
	중국	26	29.2
	기타	18	20.2
기 간	2년이하	28	31.5
	2.1~4년	19	21.3
	4.1~6년	19	21.3
	6.1년이상	23	25.8
월수입	100만원이상	31	34.8
	100만원이상 1~200만원이상	38	42.7
	200만원이상	20	22.5
전 체		89	100%

이 연구는 2010년 경기도·대전·충남·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중 한 지역에서 3개씩 총 12개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하는 이주여성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8월~2010년 8월 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인원은 총 14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89부를 사용하였다. 표본수가 적은 이유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많은 사례수를 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5문항, 여가활동 6문항, 여가제약 7개 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활동 설문지는 전은진[23]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안하여 6개 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설문지는 최인석[27]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 내재적제약 3개의 하위요인인 7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예비검사를 통하여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타당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2].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무용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등의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설문지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반영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종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가제약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가제약은 Cronbach's α 값이 .613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제약 설

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항	여가제약		
	대인적	구조적	내재적
1.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844	.093	.033
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817	-.003	-.018
3. 하고 싶은 시설이 가까이 없어서	.746	.112	-.062
4. 자녀 등 가족의 반대 때문에	.099	.921	.025
5. 자녀 등 가족의 이해가 없어서	.170	.869	.290
6.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435	.615	.832
7. 많은 기술을 요구할까봐	.500	.584	.817
고유치	1.954	1.685	1.498
분산율	27.908	24.065	21.393
누적분산율	27.908	51.973	73.366
신뢰도	.726	.816	.613

[표 2]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대인적 제약(요인적재치: .746~.844), 구조적 제약(요인적재치: .869~.921), 내재적 제약(요인적재치: .817~.832)로 세 개의 다차원적인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대인적 제약 .726, 구조적 제약 .816, 내재적 제약 .613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4. 자료처리분석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관에 대한 설문지는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의 이주여성들에게 설문지에 대해 성실한 응답 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성격을 설명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항은 교육을

표 3. 평일 여가시간의 차이에 대한 x²검증

구분		평일여가시간			전체	x ² df sig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연령	25세 이하	4(4.5)	5(5.7)	7(8.0)	16(18.2)	18.631 8 .017
	26~30세	14(15.8)	7(8.0)	4(4.5)	25(28.4)	
	31~35세	6(6.8)	6(6.8)	0(0)	12(13.6)	
	36~40세	13(14.8)	2(2.3)	1(1.1)	16(18.2)	
	41세이상	12(13.6)	4(4.5)	3(3.4)	19(21.6)	
학력	중졸이하	7(8.0)	7(8.0)	6(6.8)	20(22.7)	12.050 4 .017
	고졸	23(26.1)	4(4.5)	7(8.0)	34(38.6)	
	대졸이상	19(21.6)	13(14.8)	2(2.3)	34(38.6)	
국적	필리핀	9(10.2)	4(4.5)	10(11.4)	23(26.1)	17.298 6 .008
	일본	12(13.6)	6(6.8)	3(3.4)	21(23.9)	
	중국	18(20.5)	7(8.0)	1(1.1)	26(29.5)	
	기타	10(11.4)	7(8.0)	1(1.1)	18(20.5)	
기간	2년이하	10(11.4)	13(14.8)	5(5.7)	28(31.8)	13.412 6 .037
	2.1~4년	13(14.8)	2(2.3)	4(4.5)	19(21.6)	
	4.1~6년	10(11.4)	3(3.4)	5(5.7)	18(20.5)	
	6.1년이상	16(18.2)	6(6.8)	1(1.1)	23(26.1)	
월수입	100만원이상	16(18.2)	7(8.0)	8(9.1)	31(35.2)	7.191 4 .126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	25(28.4)	8(9.1)	4(4.5)	37(42.7)	
	200만원이상	8(9.1)	9(10.2)	3(3.4)	20(22.7)	
전체		49(55.7%)	24(27.3%)	15(17.0%)	88(100.0%)	

받은 보조원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3.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평일 여가시간

[표 3]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1~2시간(55.7%)이 가장 많았고, 3~4시간(27.3%), 5시간이상(17.0%) 순으로 나타났다.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15.8%) 가장 높았으며, 25세이하(4.5%)가 낮게 나타났고,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13.6%)이 가장 높았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20.5%)이 가장 높고, 필리핀(10.2%)이 낮게 나타났다. 기간에 따라서는 6.1년이상(18.2%)이 가장 높았다.

연령, 학력, 기간에 따른 차이는 5%수준에서 그리고 국적에 따른 차이는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28.4%)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이상(9.1%)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말 여가시간

[표 4]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여가주말시간은 1~2시간(62.6%)이 가장 많았고, 5시간이상(26.1%), 3~4시간(15.9%) 순으로 나타났다.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 26~30세(20.5%)가 가장 높았고, 31~35세(5.7%)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28.4%)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상(10.2%)이 낮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22.7%)이 가장 높았고, 기타(11.4%)가 낮게 나타났다. 기간에 따라서는 2.1~4년(18.2%)이 가장 높았고, 4.1~6년(18.2%)이 낮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33.0%)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이상(13.6%)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만족

[표 5]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만족은 보통

표 4. 주말 여가시간의 차이에 대한 χ^2 검증

구 분		여가주말시간			전 체	χ^2 df sig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연령	25세 이하	7(8.0)	2(2.3)	7(8.0)	16(18.2)	19.960 8 .010
	26~30세	18(20.5)	2(2.3)	5(5.7)	25(28.4)	
	31~35세	5(5.7)	5(5.7)	2(2.3)	12(13.6)	
	36~40세	10(11.4)	5(5.7)	1(1.1)	16(18.2)	
	41세이상	15(17.0)	0(.0)	4(4.5)	19(21.6)	
학력	중졸이상	9(10.2)	4(4.5)	7(8.0)	20(22.7)	7.673 4 .104
	고졸	25(28.4)	2(2.3)	7(8.0)	34(38.6)	
	대졸이상	21(23.9)	8(9.1)	5(5.7)	34(38.6)	
국적	필리핀	12(13.6)	4(4.5)	7(8.0)	23(26.1)	6.697 6 .350
	일본	13(14.8)	4(4.6)	4(4.5)	21(23.9)	
	중국	20(22.7)	1(1.1)	5(5.7)	26(29.5)	
	기타	10(11.4)	5(5.7)	3(3.4)	18(20.5)	
기간	2년이하	15(17.0)	5(5.7)	8(9.1)	28(31.8)	7.090 6 .313
	2.1~4년	16(18.2)	0(.0)	3(3.4)	19(21.6)	
	4.1~6년	10(11.4)	4(4.5)	4(4.5)	18(20.5)	
	6.1년이상	14(15.9)	5(5.7)	4(4.5)	23(26.1)	
월수입	100만원이상	14(15.9)	6(6.8)	11(12.5)	31(35.2)	8.836 4 .065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	29(33.0)	4(4.5)	4(4.5)	37(42.7)	
	200만원이상	12(13.6)	14(15.9)	4(4.5)	20(22.7)	
전 체		55(62.5%)	14(15.9%)	19(21.6%)	88(100.0%)	

표 5. 여가활동만족 차이에 대한 χ^2 검증

구 분		여가활동만족			전 체	χ^2 df sig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연령	25세 이하	2(2.3)	10(11.4)	4(4.5)	16(18.2)	4.222 8 .837
	26~30세	3(3.4)	14(15.9)	8(9.1)	25(28.4)	
	31~35세	0(0)	9(10.2)	3(3.4)	12(13.6)	
	36~40세	2(2.3)	10(11.4)	4(4.5)	16(18.2)	
	41세이상	4(4.5)	12(13.6)	3(3.4)	19(21.6)	
학력	중졸이상	1(1.1)	13(14.8)	6(6.8)	20(22.7)	6.296 4 .178
	고졸	8(9.1)	19(21.6)	7(8.0)	34(38.6)	
	대졸이상	2(2.3)	23(26.1)	9(10.2)	34(38.6)	
국적	필리핀	4(4.5)	12(13.6)	7(8.0)	23(26.1)	2.787 6 .835
	일본	3(3.4)	12(13.6)	6(6.8)	21(23.9)	
	중국	2(2.3)	19(21.6)	5(5.7)	26(29.5)	
	기타	2(2.3)	12(13.6)	4(4.5)	18(20.5)	
기간	2년이하	5(5.7)	19(21.6)	4(4.5)	28(31.8)	6.084 6 .414
	2.1~4년	2(2.3)	9(10.2)	8(9.1)	19(21.6)	
	4.1~6년	1(1.1)	13(14.8)	4(4.5)	18(20.5)	
	6.1년이상	3(3.4)	14(15.9)	6(6.8)	23(26.1)	
월수입	100만원이상	6(6.8)	19(21.6)	6(6.8)	31(35.2)	2.590 4 .629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	3(3.4)	23(26.1)	11(12.5)	37(42.7)	
	200만원이상	2(2.3)	13(14.8)	22(25.0)	20(22.7)	
전 체		11(12.5%)	55(62.5%)	22(25.0%)	88(100.0%)	

표 6. 여가활동 선호도 차이에 대한 χ^2 검증

구 분		여가활동 선호도						전 체	χ^2 df sig
		여행	문화활동	운동	사회봉사 활동	지식 교양 학습활동	기타		
연령	25세 이하	8(9.2)	1(1.1)	1(1.1)	1(1.1)	4(4.6)	1(1.1)	16(18.2)	25.533 20 .182
	26~30세	13(14.9)	1(1.1)	5(5.7)	1(1.1)	4(4.6)	1(1.1)	25(28.4)	
	31~35세	4(4.6)	0(0)	6(6.9)	0(0)	1(1.1)	1(1.1)	12(13.6)	
	36~40세	7(8.0)	4(4.6)	3(3.4)	1(1.1)	1(1.1)	0(0)	16(18.2)	
	41세이상	7(8.0)	1(1.1)	2(2.3)	1(1.1)	3(3.4)	4(4.6)	18(20.7)	
학력	중졸이상	6(6.9)	1(1.1)	2(2.3)	2(2.3)	4(4.6)	4(4.6)	19(21.8)	11.156 10 .345
	고졸	15(17.2)	4(4.6)	7(8.0)	1(1.1)	5(5.7)	2(2.3)	34(38.6)	
	대졸이상	18(20.7)	2(2.3)	8(9.2)	1(1.1)	4(4.6)	1(1.1)	34(38.6)	
국적	필리핀	9(10.3)	3(3.4)	3(3.4)	2(2.3)	2(2.3)	3(3.4)	22(25.3)	13.300 15 .579
	일본	8(9.2)	2(2.3)	6(6.8)	0(0)	3(3.4)	3(3.4)	21(23.9)	
	중국	14(16.1)	1(1.1)	3(3.4)	1(1.1)	6(6.9)	1(1.1)	26(29.5)	
	기타	8(9.2)	1(1.1)	6(6.8)	1(1.1)	2(2.3)	0(0)	18(20.5)	
기간	2년이하	8(9.2)	2(2.3)	4(4.6)	1(1.1)	6(6.9)	6(6.9)	27(31.0)	21.478 15 .122
	2.1~4년	13(14.9)	1(1.1)	2(2.3)	0(0)	3(3.4)	0(0)	19(21.6)	
	4.1~6년	8(9.2)	1(1.1)	5(5.7)	2(2.3)	2(2.3)	0(0)	18(20.5)	
	6.1년이상	10(11.5)	3(3.4)	6(6.9)	1(1.1)	2(2.3)	1(1.1)	23(26.1)	
월수입	100만원이상	9(10.3)	3(3.4)	6(6.9)	1(1.1)	7(8.0)	5(5.7)	31(35.2)	11.975 10 .287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	18(20.7)	4(4.6)	7(8.0)	2(2.3)	3(3.4)	2(2.3)	36(41.4)	
	200만원이상	12(13.8)	0(0)	4(4.6)	1(1.1)	3(3.4)	0(0)	20(23.0)	
전 체		39(44.8%)	7(8.0%)	17(19.5%)	4(4.6%)	13(14.9%)	7(8.0%)	87(100.0%)	

이다(62.5%)가 가장 많았고, 그렇다(25.0%), 그렇지 않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15.9%)가 가장 많았고, 31~35세(10.2%)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26.1%)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상(14.8%)이 낮게 나타났다.국적에 따라서는 중국(21.61%)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13.5%)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2년이하(21.6%)가 가장 높았고, 2.1~4년(10.2%)이 낮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이상(26.1%)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이상(14.8%)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선호도

[표 6]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선호도는 여행(44.8%)이 가장 많았고, 운동(19.5%), 지식, 교양학습

활동(14.9%), 문화활동(8.0%), 기타(8.0%), 사회봉사활동(4.6%)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14.9%)가 가장 높았고, 36~40세(8.0%), 41세이상(8.0%)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20.7%)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상(6.9%)이 낮게 나타났다.국적에 따라서는 중국(16.1%)이 가장 높았고, 일본(9.2%), 기타(9.2%)가 낮게 나타났다. 기간에 따라서는 2.1~4년(14.9%)이 가장 높았고, 2년이하(9.2%), 4.1~6년(9.1%)이 동일하게 낮게 나타났다.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20.7%)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이상(10.3%)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동반자

[표 7]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는 배

표 7. 여가활동 동반자 차이에 대한 x²검증

구 분		여가활동 동반자					전 체	x ² df sig
		혼자	배우자	친구	자녀	기타		
연령	25세 이하	2(2.3)	6(6.9)	1(1.1)	6(6.9)	1(1.1)	16(18.4)	22.124 16 .139
	26~30세	4(4.6)	9(10.3)	8(9.2)	2(2.3)	2(2.3)	25(28.7)	
	31~35세	0(0)	3(3.4)	5(5.7)	3(3.4)	1(1.1)	12(13.8)	
	36~40세	1(1.1)	10(11.5)	2(2.3)	2(2.3)	1(1.1)	16(18.4)	
	41세이상	2(2.3)	3(3.4)	9(10.3)	2(2.3)	2(2.3)	18(20.7)	
학력	중졸이상	2(2.3)	6(6.9)	4(4.6)	4(4.6)	4(4.6)	20(23.0)	10.655 8 .222
	고졸	3(3.4)	9(10.3)	12(13.8)	8(9.2)	1(1.1)	34(37.9)	
	대졸이상	4(4.6)	16(18.4)	9(10.3)	3(3.4)	2(2.3)	34(39.1)	
국적	필리핀	3(3.4)	7(8.0)	4(4.6)	6(6.9)	3(3.4)	23(26.4)	8.246 12 .766
	일본	1(1.1)	8(9.2)	7(8.0)	3(3.4)	2(2.3)	21(24.1)	
	중국	4(4.6)	10(11.5)	6(6.9)	4(4.6)	1(1.1)	26(28.7)	
	기타	1(1.1)	6(6.9)	8(9.2)	2(2.3)	1(1.1)	18(20.7)	
기간	2년이하	4(4.6)	7(8.0)	6(6.9)	5(5.7)	5(5.7)	27(31.0)	22.078 12 .037
	2.1~4년	0(0)	10(11.5)	4(4.6)	5(5.7)	0(0)	19(21.8)	
	4.1~6년	4(4.6)	6(6.9)	4(4.6)	4(4.6)	0(0)	18(20.7)	
	6.1년이상	1(1.1)	8(9.2)	11(12.6)	1(1.1)	2(2.3)	23(26.4)	
월수입	100만원이상	3(3.4)	8(9.2)	9(10.3)	8(9.2)	4(4.6)	31(35.6)	9.522 8 .300
	100만원이상~200만원 이상	2(2.3)	12(13.8)	12(13.8)	12(13.8)	3(3.4)	37(42.5)	
	200만원이상	5(5.7)	11(12.6)	4(4.6)	4(4.6)	0(0)	20(21.8)	
전 체		9(10.9%)	31(35.6%)	25(28.7%)	15(17.2%)	7(8.0%)	88(100.0%)	

우자(35.6%)가 가장 많았고, 친구(28.7%), 자녀(17.2%), 혼자(10.9%), 기타(8.9%)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36~40세(11.5%)가 가장 높았고, 31~35세(3.4%)가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18.4%)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상(6.9%)이 낮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11.5%)이 가장 많았고, 기타(6.9%)가 낮았다. 기간에 따라서는 2.1~4년(11.5%)가 가장 많았으며, 4.1~6년(6.9%)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13.8%)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이상(9.2%)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제한

[표 8]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제한의 차이에 대한 F검증 결과이다.

[표 8]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개인적제한은 25세이하(M=2.312)에서 높고, 36~40세(M=1.593)에서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대인적제한, 개인적제한은 중졸이하(M=2.425, 2.400)에서 높고, 대졸이상(M=1.691, 1.823)에서 낮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구조적제한은 중국(M=3.538)에서 높고, 개인적제한, 대인적제한은 일본(M=1.642, 1.857)에서 낮게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구조적제한은 2년이하(M=3.000)에서 높고, 개인적제한은 2년이하(M=1.750), 대인적제한은 6.1년이상(M=1.913)에서 낮게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개인적제한은 2.1~4

표 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제한

구 분		여가제한		
		구조적	대인적	개인적
연령	25세 이하	2.979±.829	2.375±1.10	2.312±.892
	26~30세	3.306±.854	1.920±.897	2.280±.678
	31~35세	3.305±.688	1.916±.701	2.125±.644
	36~40세	2.916±1.22	2.031±1.087	1.593±.611
	41세이상	2.947±.982	2.207±.886	1.815±.628
	F값	.795	.649	3.534*
학력	중졸이하	3.166±.812	2.425±.892	2.400±.699
	고졸	3.117±1.05	2.205±1.08	2.044±.762
	대졸이상	3.309±.932	1.691±.674	1.823±.661
	F값	.127	4.921*	4.144*
국적	필리핀	3.159±.840	2.521±1.27	2.369±.828
	일본	2.476±.764	1.857±.923	1.642±.744
	중국	3.538±1.011	1.924±.711	2.076±.611
	기타	3.111±.749	1.861±.537	2.027±.580
	F값	5.953***	2.721*	3.969*
기간	2년이하	3.000±.902	2.035±.891	1.750±.585
	2.1~4년	2.964±1.01	2.052±1.06	2.315±.749
	4.1~6년	3.518±.725	2.277±1.10	2.222±.911
	6.1년이상	3.000±1.00	1.913±.778	2.021±.648
		F값	1.568	.505
월수입	100만원이상	3.000±.886	2.290±1.01	2.080±.719
	100만원이상~200만원이상	3.090±1.00	2.040±.967	2.000±.807
	200만원이상	3.26±.882	1.725±.678	2.050±.646
		F값	.494	2.262

년(M=1.75)에서 낮게 나타났다.

IV.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방안

4.1 여가시간 증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일여가시간과 주말여가시간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평일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은 '26~30세'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이들이 20대 초반에 이주를 하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운 적응기를 가지다가 20대 중반에는 한국사회를 적응하면서 여가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여가시간은 '고졸'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여가시간은 중국 출신 여성들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와 풍습이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이 쉽고, 또한 코리아드림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기간에 따른 여가시간은 '6.1년 이상' 거주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고향을 벗어난 낯선 환경에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고 이질적인 한국문화 환경에 단 기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한국문화 및 사회적응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한국생활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여가활동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때, 부족한 여가시간은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사회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주말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한국사회 한 가정의 주부로 인식하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본국 이주여성 친구와 만나서 향수를 달래고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말에 여가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배려해야겠다.

이주여성들은 여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정보의 부족,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과도한 집안일과 육아문제, 남편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여가활동실태 조사가 미비하여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이주여성들의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시와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4.2 여가활동 만족 제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활동 참가를 통한 만족감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만족은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여성들대부분이 농촌총각, 재혼, 나이차가 많은 남성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므로 열악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여가인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 부족, 과도한 집안 살림,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불만족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가활동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인식,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4.3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용 선호도는 '여행'이 가장 많았다. 여행은 다양한 체험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친구사귀기, 신체·정서적 발달, 자기표현력, 창의력,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은 가정살림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행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우택·박용범[22]의 '도시지역부부의 여가활동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

석'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 농촌진흥청[8]의 조사에서 밝힌 정적여가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만 되면 활동적인 여가를 향유하고 싶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를 체험하기에는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여가제약이 따른다. 개인적으로는 시간 제약, 교통의 불편함, 집안 살림과 육아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어려운 살림 등의 문제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 민간단체 등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 역시 한국문화적응, 한국어 교육, 취업알선 등과 같은 정적인 활동 여가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각도의 마케팅과 지원정책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겠다.

4.4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장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위주보다는 가족중심 또는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 동반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현실[6]은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조차도 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의사소통의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여성들과 사귀지만 한국여성과는 별로 교류가 없다. 이처럼 가족 외에는 한국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중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배우자를 찾는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한 가정의 주부로 지내고 농촌으로 시집와서 농사일을 남편과 함께 하기에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보내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동반자를 사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배우자야말로 문화적 차이,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가활동 동반자로 배우자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주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의 주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필요성은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여가활동 참가는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자기개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성호[20]). 남은영·박수정·김영빈[7]은 이주여성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 곳에 내재된 한국인의 사고나 행동 방식 즉,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며, 여가를 통해서 한국문화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주여성들의 여가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자기의 삶의 질과 자기개발 보다는 한국사회 적응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설의 부족 등 주변의 모든 여건이 여가를 향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주여성들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사람들을 접하면서 언어소통 및 정보교환 원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올바른 한국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녀교육, 자아 실현 및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4.5 여가제약 요인 완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면 여가활시 직면하게 되는 여가제약 요인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국적, 기간, 월수입별로 여가제약은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25세이하' 연령층이 개인적 여가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체류기간이 짧아서 언어소통의 불편함과 한국문화 및 사회적응,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여가제약을 받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 집단에서 대인적, 개인적 여가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회문

화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여야 하는데 [31][15], 이런 과정을 익히고 습득하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집단에서 구조적 여가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양적, 질적인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회관, 여성회관 등에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여가로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수준은 열악한[8][25] 현실이다. 기간에 따라서는 ‘2년 이하’ 집단에서 개인적 여가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 소득층의 한국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육아교육, 시부모 섬기는 등 많은 한 가정의 아내로서 맡아서 해야 할 책임감으로 인해 여가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의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을 떠나 더 나은 경제적 삶과 자아실현을 위한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새로운 한국이란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지만 정부 정책, 사회여건 및 가정생활이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한 가정의 아내, 자녀의 양육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어려운 경제 살림으로 인해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여가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특성,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여가실태를 조사한 후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절대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추후 연구로 재차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89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13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다.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주말 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다. 셋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만족은 ‘보통’이 가장 많다. 넷째, 다문화가정 여가활동 선호도는 ‘여행’이 가장 많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배우자’가 가장 많다. 여섯째, 연령, 학력, 국적, 기간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여가 제약은 차이가 있다. 즉, 연령에 따른 개인적제약은 25세 이하, 학력에 따른 대인적제약, 개인적제약은 중졸이하 여성에게서 높다. 국적에 따른 구조적 제약은 중국 여성, 그리고 대인적, 개인적 제약은 필리핀 여성, 기간에 따른 개인적제약은 거주기간 2.1~4년 여성에게서 높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시간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감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넷째,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여가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여가활동 참가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관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연구에 필요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수의 표본수로도 연구가 가능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없는 실정에서 여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행위와 관련된 여가제약, 여가동기 등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행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봉찬,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제약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관광학회, Vol.2010, No.7, 2010.
- [2] 김경식,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무지개 출판사, 서울, 2010.
- [3] 김병숙, 안윤정, 송혜령,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5 No.2, 2010.
- [4] 김은미, 최명구, “청소년 여가활동과 행복과의 관계”, 아동교육, 제26권, 제1호, pp.155-172, 2006.
- [5] 김이선, 정혜숙, 이정덕,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V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7-02, 3-1, 2010.
- [6] 김현실,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 새로운 여성간호 대상자의 출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2008.
- [7] 남은영, 박수정, 김영빈, “여성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색”, 교육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pp.189-195, 2010.
- [8] 농촌진흥청, “농업인 삶의 질 수준 측정 및 복지정책 연구개발”, 2007.
- [9] 문석우,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조사: 광주, 전라지역의 러시아 및 CIS 국가 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中藝研究, 제34권, 제1호, 2010 봄, pp.223-265, 2010.
- [10] 박영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보육교사의 보육경험실태”, 유아교육연구, Vol.30, No.1, pp.197-223, 2010.
- [11] 박행모, 문승태,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 분석, 농업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2호, pp.69-91, 2008.
- [1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2006.
- [13]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21-143, 2008.
- [14] 안병욱, 여인성, 구창모,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 유형화에 대한 Q 방법론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Vol.49, No.3, 2010.
- [15]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26, pp.79-110, 2007.
- [16] 양인숙, 민무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7-04, 3-3, 2010.
- [17] 엄진중,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39, pp.851-864, 2010.
- [18] 여성부, “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2009.
- [19] 이문숙,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우리성 및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Vol.34, No.1, 2010.
- [20] 이성호, “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자아 효능감-주관적 규범의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43호), pp.293-311, 2008.
- [21] 임변장,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순지도 사업운영지침”, 서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999.
- [22] 임우택, 박용범, “도시지역부부의 여가활동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Vol.10, No.1, 2001.
- [23] 전은진,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4] 정일선, 경향신문, 12. 2. 2007.
- [25] 차성란,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사회학회, (주)누리미디어, 2010.
- [26] 최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1호, 2007.
- [27] 최인석, “여가테크를 위한 골프참가자의 여가제약 지속의도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pp.173-182, 2010.
- [28] 홍기혜,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2000.

- [29] 황향희, “다문화가정 여가교육스쿨을 통한 자아 정체감 연구 한국여성학회지”, 제24권, 제4호, pp.59-72.
- [30]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2009.
- [31] Bell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Vol.46, No.1, pp.5-68, 1997.
- [32] N. Bolger and J. Eckenrode, “Socioical relations, personality, and anxiety during a major stressful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 440-9, 1991.
- [33] J. R. Kelly, “Leisure(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0.

김 정 련(Jeong-Ryeon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체육학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학 석사)
- 2011년 2월 : 순천향대학교 (예술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무용사회학, 무용심리

저 자 소 개

윤 민 숙(Min-Sook Yun)

정회원



- 1990년 2월 : 원광대학교학과(무용학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학 석사)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체육학 박사수료)

▪ 현재 : 충남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무용여가, 무용심리

이 정 흔(Jeong-Heun Lee)

정회원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장
- 현재 : 경기지도자연수원장

<관심분야> : 무용여가, 무용심리